

「신학의 사조」 6: 근본주의

<12 강좌> 계획 - 어거스틴에서 포스트-모던까지

- |          |              |                |
|----------|--------------|----------------|
| 1. 어거스틴  | 2. 토미즘       | 3. 종교개혁        |
| 4. 경건주의  | 5. 자유주의      | <u>6. 근본주의</u> |
| 7. 신정통주의 | 8. 실존주의(볼트만) | 9. 정치신학(볼트만)   |
| 10. 해방신학 | 11. 환경/생명신학  | 12. 포스트-모던 신학  |

I. 지난 시간의 요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1. 17-18세기 -- 과학의 발달(뉴턴), 합리주의(+비판철학) 등장
  - . 자율성과 합리성이 타율적 권위와 (계시된 가르침에 대한 동의로서의) 신앙에 도전
  - .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브루조아지” 등장
  - . 자연과 도덕에 관한 합리적, 분석적 사유의 광범위한 지배
2. 19세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장
  - <<< 자족하는 자율하는 개인, 개인의 자유 실현은 초월적/이상적 조화에 이른다는 신념>>>
  - . 이것은 18세기의 합리주의(+자유주의)에 19세기 초의 “낭만주의”가 가미된 부산물이다.
  - . “Liberty” =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여 생각하기 시작
    - 곧 <사회>는 자유방임적 각 개인의 조합(전적 자유=만인의 평등)
    - <국가>= 사회를 위한 “야경꾼”
3. 교회(평신도)를 향한 “자유주의”의 도전
  - . “권위”(세속권, 교회권)에서의 해방 --> 교회는 “私生活”에만 관심하라!
  - . 가톨릭 교황(성직자 일반)의 저항 --> “자유주의”는 시민 사회를 “신의 권위”에서 이탈시키는 모반”이다!!
4. 자유주의가 준 신학적 도전/과제
  - . 개인의 절대적, 포괄적 자유, 자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 (1) 기독교의 가르침<교리>의 합리성(지적 신뢰성)과
    - (2)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 필요성을 해명할 것인가?
5. 자유주의 신학의 사례
  - 1) 쉴라이어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 - “근대 신학의 아버지”
    - (1) “종교는 특수한 형태의 의식/감정이다”는 논리로 해명을 시도하다.
    - (2) 예수의 신성=신-의식의 강도 차이, 교회=신-의식의 역사적 매개체그러나 <<<결과적으로는>>>
    - (3) <역사와 신앙>의 문제, 성경의 <비판적 연구>가 탄생하다.
  - 2)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 “도덕적 가치 (판단)”의 신학
    - (1) 예수는 “이 세상적 하느님 나라”의 첫 시발자, 예수는 이웃 사랑=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실현(모범)
    - (2) 예수의 신성=교회의 신앙에 의한 가치 판단(주관적) 선언, 역사적 사실 혹은 이성적 경험(객관적 논증) <아니다>
    - (3) 교회=예수가 위하여 죽은 영적, 도덕적 공동체, 인간 사회를 하느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공동체

./\*/ 죄=이기심(하느님 나라가 아닌, 열등한 가치 추구)

## II.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 교회의 반응 =20세기 초의 근본주의

### 1. (19세기 자유주의 이전의) 역사적 배경/사건들

#### 1) 17세기의 갈릴레오 종교재판 사건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이탈리아의 피사(“경사진 탑”이 있는 곳) 태생의 천문학. 그는 당시 새로이 발명된 망원경을 통하여 1610년, 코페르니커스의 태양계 이론, 곧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 1616년, 코페르니커스의 이론을 「종교적 이단」으로 규정, 정죄하였다. 교황은 갈릴레이에게 “그런 이론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갈릴레이는 그 후 적어도 25 년 동안 침묵을 잘 지켰다. 그러나 마침내 1632년 다시금 “지동설”을 주장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 해, 교황은 이 과학자에게 종교재판 상의 최고형인 “출교”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그 후 360 년 동안 허공을 떠도는 불귀의 객이 되어야 했다. 그러다가 1992년 11월 2일, 교황청의 특별 사면을 통하여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의 기독교인 자격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의의: 이 사건은 기독교(가톨릭)가 과학자의 말과 성경의 증언의 차이를 깨닫는 데 적어도 360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 2. 유럽의 대“전도운동”(Evangelism) = 부흥운동

전도 운동은 일반적으로 18세기의 종교 각성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운동은 철저히 앵글로-아메리카적 현상이지만, 그 기원은 유럽 프로테스탄티즘과 연결되어 있고, 더 위로는 성서의 유일무이한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종교개혁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7세기 퓨리탄니즘은 이같은 강조점들을 영국의 개신교 전통에 깊게 심어주었고, 특별히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18세기에 대륙의 경건주의는 이같은 청교도주의와 만나게 되는데, 웨슬리와 모라비안교도들과의 만남은 이에 대한 좋은 실례가 된다. 영국에서의 이러한 각성 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과 비국교도 사이의 전도 운동적 부흥가들, 그리고 영국 교회 내의 전도적 분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세기 중반에 오면 이 “전도 운동”은 영제국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된다.

. 미국의 경우, 이 “전도 운동”의 영향을 더욱 크다.

그 이유는 이 신천지 미국에는 영국 교회와 같은 잘 조직된 도전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과 “전도 운동”의 발흥은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종교는 유사 공식적인 지위를 얻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전도 운동”이 강조하는 “자발적인 수용”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이상이 잘 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 미국 “전도 운동”의 성격은 18세기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 기간 중에 그 특성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뉴 잉글랜드 청교도주의, 대륙의 경건주의, 영국인 윌필드의 칼빈적 부흥주의 그리고 감리교 운동 등 일련의 운동들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19세기 초에서 중반까지의 기간 중 미국에서의 “전도 운동”은 곧 프로테스탄티즘으로 통하고 있었다. 물론 그 내부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칼빈주의와 감리교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삶으로 증거되는 <회심 경험>을 강조하였고, 부흥과 선교에 치중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교회를 오직 성서의 권위 위에만 근거한 신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이해한다.

19세기 초까지는 이들은 종파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인 사회들”(voluntary societies)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망(network)을 결성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또한 선교 활동을 전세계로 확대하였고, 자선 사업과 사회적 개혁을 지향하여, 노예 해방운동/노예

제도 폐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안식일 엄수, 금주 규정 제정, 교도소 개혁 같은 다른 개혁들도 추진하였다. 또한 많은 자선 단체의 설립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급격히 변화된 상황 때문에 그 초점은 개인적 성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산업화 현상과 대도시 출현 등으로 개인적/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전에 문화를 지배하던 개념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개인적 성결 등을 강조하게 되는 운동들이 출현하게 되며, 사회개혁은 퇴조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에 도덕적 영향을 주려는 열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흥사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이다. 무디는 피니(C. Finny)와는 달리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을 강조하게 되며, 이같은 사상적인 전환은 후에 나타나게 되는 근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도운동가들은 지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 다위니즘이 그 당시 문화 전반을 지배하던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다위니즘에 대한 초기의 논쟁은 “전도 운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근대 과학과 성서적 기독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더 커다란 문제는 “실재와 진리”에 대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인데, 고정된/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인간의 문화적 진화의 변화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서구인들은 이 다위니즘 논쟁을 통해 점차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요, 단지 신과 도덕성에 대한 인간 개념의 변천 기록>일 뿐이다.

. 이러한 개념은 곧이어 성서에 적용되었고, 결국 19세기 후반의 성서 고등 비평은 성서를 그저 히브리인들의 종교 체험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하게끔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광범위한 전도운동적 합의점을 그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고, 구원 교리의 근원으로서의 성서의 절대적 권위와 성서에 근거한 도덕적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의문은 교회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결과적으로 19세기 중반에 이룩된 전도운동 동맹 내부에서는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기독교 신앙을 시대의 조류에 맞게 조정해 보려는 소위 “현대주의자”로 불리우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문명과 도덕의 성장이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속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란 저 세상을 준비키 위한 영원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 말해주는 신적인 계시일 뿐이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초반의 진보적 정치학에 근거한 “사회 복음”을 옹호하면서, 과거 전도 운동의 개인중심적 구원을 사회 구원적 구원으로 초점을 바꾸게 되었다.

. 그러나 반면에 이같은 세속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성서의 초자연적 기적 사건들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교리들을 계속 지켜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었다.

### 3. 미국 근본주의의 대동

<발단 사건: 브릭스 사건과 “나아아가라 선언”>

. 1890년, 소위 말하는 ‘브릭스 사건’이 일어났는데, 북장로교회 산하에 있었던 뉴욕시 소재 유니온 신학교에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브릭스(Chrales A. Briggs)가 교수로 취임하면서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영감(靈感)을 부인하고, 성경의 고등비평을 수락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미국 북장로교회는 1892년 고등비평적 성경관을 정식으로 정죄하고, 브릭스 교수와 그를 동조하는 몇몇 교수를 신학교 교수직으로부터 해임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보수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의 무오설을 지키기 위해 대 단합을 꾀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근본주의 운동은 시작되었다.

. 이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 고등비평에 위기를 느낀 보수 지도자들은 수모받은 성서를 들고 대중 전도에 나선 무디와 함께 교인들을 모아 사경회(Bible Conference)를 열었다. 이 사경회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1895년 나이아가라 휴양지에서 모인 사경회(Niagara Bible Conference)는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사경회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의 여파로 추락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독교 근본 교리를 확립/수호하기 위한 초교파적인 보수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

. 여기에서 기독교의 5 가지 근본 교리 선정하였다:

1. 성서의 축자 영감설/무오설(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2.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The virgin birth of Christ)
3. 대속적 죽음(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of Christ for the sins of the world)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Christ's bodily resurrection)
5. 육체적 재림(Christ's second coming)

. <근본주의 정착: 소책자 운동>

1909-1912년, 근본주의 총서 『근본주의 진리 증언』(Fundamentals : A Testimony to the Truth) 12권을 발간하여 문서 사업을 통한 근본주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아갔다. 이 총서의 집필진은 교파를 초월한 여러 부류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합전선적인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와이만(Wyman)과 스튜어트(M. Stewart)라는 평신도의 출자에 의해 300만 부 이상이 무료로 전국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나온 근본주의 책자들은 질적으로 이 총서를 능가하지 못했고, 근본주의자들은 감정적이고 적개심으로만 불타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정립 내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 1910년에 개최된 북장로교회 총회는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를 확인하고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나이아가라 회합의 5 대 교리와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대체한 것인데, 이는 천년기 시기에 관한 개혁주의자와 세대주의자들 사이의 이견 조정 때문이었다. 말썽의 소지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 그러나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근본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자체 내의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 1918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예언의 말씀 대회”(Prophetic Conversion)가 열렸는데, 이는 20세기 최초의 근본주의자 대회이다. 라일리(W. B. Riley)가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현대주의의 위협”의 제목으로 강연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론하는 『예언의 빛』(*Light on Prophecy*)을 출간하였다. 1919년에도 근본주의자 대회가 시카고의 무디성서학교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25 편의 논문을 수록한 『신언』(“God has Spoken”)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자세를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기구가 조직되는데, 이는 후에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연합회”(the World's Christian Fundamentals Association)로 알려지게 되었다.

. 1920년 미국 침례교 신학자인 로우스(Curtis Lee Laws)는 침례교 기관지인 Watchman-Examiner에서 보수주의 그룹을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후, 이 말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 <공격받는 근본주의>

. 그러나 이토록 맹렬하게 전개되던 근본주의 운동도 다음 중요한 두 자유주의 사상과의 논쟁 사건 이후로는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어, 급기야는 완전히 주요 교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고립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첫번째 사건: 1922년,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의 설교 사건>

뉴욕시의 제일장로교회에서 시무하던 자유주의계 침례교 목사 포스딕은 “근본주의자들은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는데, 그 교회의 아이비 리(Ivy Lee)라는 평신도가 그것을 “신지식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인쇄하여 교계에 배포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읽히던 설교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근본주의가 자유를 억제하며 관용심이 없다고 공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절대적 교리로 고집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온 세계가 무지와 빈곤과 전쟁 등 사회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찮은 일로 다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였다: “나는 근본주의자들이 성공하리라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이에 맞서서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 목사 클레어런스 매카트니(Clarence E. Macartney)는 “불신앙은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상반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하여 그 주관성과 비성경적 이론 전개를 비난하였다.

또한 필라델피아 노회가 열렸을 때, 매카트니는 이 문제를 제기하여 뉴욕시 제일장로교회의 설교가 전통적인 장로교회 교리에 부합한 설교가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북장로교회 총회는 뉴욕 노회에 포스딕이 장로교회 교리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나, 포스딕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반발, 결국 목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은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

<두번째 사건: “원숭이 재판 사건>

1925년 테네시 주 데이튼에서 열린 “스콧스 재판”(The Scopes & Monkey Trial: July 10, 1925 - July 25, 1925)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근본주의 운동은 사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사건은 존 스콧스(J. T. Scopes)라는 한 공립학교 교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진화론--다윈의 진화론이 교회의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교회 인사들은 공립학교에서 생물과목을 가르칠 때, 진화론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제정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당시에는 남부의 여러 주에서 진화론 소개를 법으로 금지시켰다--을 가르침으로 인해 일어났다. 법정에서는 근본주의의 이름난 대변자인 브라이언(W. J. Bryan) 목사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법률가 대로우(Clarence Darrow) 사이에 열린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브라이언 목사는 창조론의 입장을 변호하기는 했지만 황설수설하며 오히려 무지를 폭로하는 듯 보였으나, 대로우는 브라이언을 명석한 이론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궁지에 몰아 넣었다. 종국에는 일단 스콧스가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100 불 벌금형)이 났지만, 그 당시 사회 여론은 대로우 편으로 기울었고, 근본주의는 “사멸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리게 하였다.

이후로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부흥사경회 개최/성경학교 설립/해외선교사 파송 등을 벌이면서 개교회 성장에 주력하면서, 자유주의로부터의 분리와 독립교회 설립을 꾀하였다.

<거듭되는 분열>

. 한편, 1925년의 프린스턴 신학교 사건은 이같은 “분리” 운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는 설립 이래로 미국 보수신학과 “성서 영감설”의 본거지로서 군림해 왔다. 그러나 1914년 로스 스티븐슨(J. Ross Stevenson)이 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은 보수신학자이지만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중용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당시 교단 내에서는 “오번 선언”(the Auburn Affirmation)이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적인 프린스턴 신학 노선을 비판하면서, “진보성”을 띤 새 신학 사상과 교리 해석에 “관용”을 베풀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1만 명의 교단 목사가운데 1,293 명이었고, 이들은 1910년 교단이 정한 5 가지 교리를 목사 안수의 필수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여러가지 학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제안을 교장은 받아들여 이 오번 선언 동조자에게 신학교 운영의 참여를 허락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같은 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해 메이첸(J. Gresham Machen), 엘리스(Allis), 윌슨(Wilson), 반 틸(Van Til) 등 보수적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학교 안에 침투하였다고 교장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인근 필라델피아 시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후에 미국 북장로교회 전체가 자유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자, 동지들과 교회들을 규합하여 1936년 정통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설립함으로써 교단 분열을 감행하였다. 이후 ‘이탈과 분리’가 근본주의 운동의 특징으로 인식되었다.

. 그러나 교단 분열을 감행하여 갈라져 나온 정통장로교회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심해졌고, 종말론과 신자의 경건 생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체 내에 긴장이 생기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종말론에 있어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쪽이었고, 주초(酒草)와 극장 출입 문제 같은 것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를 규범화하는 일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더 엄격한 윤리를 주장하였던 강경파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하여 결국에는 맥킨타이어(Carl McIntire)를 중심으로 성경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와 페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를 세우며 또다시 교단 분열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채 못되어 이 페이스 신학교는 행정 문제로 분리되어 또다시 세인트 루이스에 버스웰(J. O. Buswell)을 중심으로 카비넬트 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와 복음장로교회가 생겨났다.

. 침례교회의 경우,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한 목사들은 침례교회의 독특한 독립주의적 정치 원리에 따라 더 많은 분리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분리로 인해 “분산된 힘”의 결속을 위해 조직적인 연합체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자 1941년에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가, 1948년에는 맥킨타이어의 주도 아래 국제 기독교교회 협의회(IC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가 암스테르담에서 각각 조직되었다. 이들은 완전분리주의를 주장하여 WCC 계에 참여하는 목사들과 연관된 그 어떠한 회의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고, WCC와 자유주의자들과도 연합 사업을 벌이는 빌리 그래함이나 풀러 신학교 및 *Christianity Today*誌 등의 모든 기관을 정죄하고 있다. 이를 사람들은 “신근본주의 운동”(Neo-Fundamentalism)이라 부른다.

. 한편, 완전 분리를 최대의 미덕으로 삼는 신근본주의 운동과는 달리 1970년대에 들어와 세속 세계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개혁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분리만이 최선이 아니며, 세속 사회에 기독교적인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조직과 매스 미디어를 동원하는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1947년 옥켄가(Harold J. Ockenga), 카넬(Edward J. J. Carnell), 칼 헨리(Carl F. Henry), 해리슨(E. Harrison), 버나드 램(Bernard Ramm) 등이 주축이 되어 캘리포니아 파사디나市에 설립된 풀러신학교(the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출발한 “신복음주의 운동”(Neo-Evangelism)이다.

. 이들은 “정통주의의 새로운 시작” 또는 “근본주의의 부활”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자신들의 선조인 근본주의를 아무런 주저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본주의 운동의 특징 처럼되었던 “분리” 정책이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음을 통탄하면서, 뚜렷한 기독교적 문화관과 선교 의식을 부각시켜 정통주의의 신학적 실각을 만회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미국복음주의연합회(NAE :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을 1942년에 설립하여, 어느 교파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있으며, WCC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연합 사업을 펼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TV 방송 등을 이용하여 복음 전도 및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197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의 당선에 영향을 미침으로 막강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4. 한국의 상황

. 자유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은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다.

곧 박형용 목사를 중심으로 한 평양신학교(후에 장로교신학교로 변경) 측과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사이의 분리와, 예장과 기장 교단 사이의 분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진영 사이의 싸움 배후에는 복잡한 교권 싸움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신학적 견해 차이였다. 당시의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펏 박사의 지적대로, 한국에 와 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은 한국 교회에 보수 사상 -- 곧 근본주의 운동-- 을 전해주기는 했으나, 교권적인 세력을 잡고 있던 터라 자신들과는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 -- 곧 자유주의자들 -- 은 용납하지 않았다.

. 한편, 일본이나 구미에서 신학을 연구한 한국인 목사들이 귀국해서 세계 신학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교회 안에도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김재준 목사이다. 그는 한국신학 교육의 폐쇄성을 공박하며, 단일하고도 고루한 전통 신학과 고정된 사문(死文)의 교리 항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서 축자영감설을 반박함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주체 의식을 방해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공격하였다. 김재준 목사 외에도 채필근, 김영주, 김춘배 등도 각각 변증법적 신학 소개, 창세기의 모세 저작 부인, 여권(女權)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등으로 자유주의적 사상의 커다란 흐름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

. 보수 진영의 우두머리 격으로는 박형용 목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보수 진영의 거두 메이첸(G. Machen) 박사에게 직접 사사받은 전형적인 근본주의자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의 신학의 “창작”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정신앙(正信仰)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으로 보고, 성서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성서 고등비평을 단죄하였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양측은 계속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다가 1952년 4월 대구 서문 교회에서의 제37회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대립이 첨예화되고, 1953년의 제38회 총회가 김재준 목사를 “제36회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성경 유오설을 계속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목사직 파면을 결의하자, 김재준 목사 측은 1953년 6월 10일 범동 제38회 총회를 열고 교단 분열을 감행, 1954년 6월 10일 제39회 총회에서 총회 명칭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바꾸고 새로운 교단의 출발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한국 장로교회의 예장과 기장 사이의 분열 사건이다.

##### 5. 한국의 근본주의 대부, 박형용 신학의 단면 (직접 인용)

박형용의 학위 논문의 논제: 자연과학의 빛에서 기독교 종교의 기본 교리를 변증함 (찰스 하지를 따름).

(질문:) 성경은 과연 잘못된 과학을 가르치며,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붕괴하는가?

(대답:) 성경은 과학을 가르친다고 가식을 꾸미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15-59,60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사의 교과서이다.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같이 끊임 없이 성경이 과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는 둘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과학 이론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15-60

성경은 자연을 일상적 관측에 따라, 즉 현상학적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15-61.

(과학적 무오)

그러나 이상한 사실이 있다.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큰 실수(blunder)가 없다. /15-63. 흔히 과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관점을 오해한 것이다./15-64

... 따라서 신앙과 지식 사이에는 “미리 예비된 조화”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15-70 ... 어떤 학자가 최근에 말한 바에 의하면, 성경의 창조 설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해 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과학자들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방법의 발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 설명과 지질학적 역사가 <축자적으로 일치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둘이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이 있다)/15-70

(창세기 1:1-2:3: 특히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수백만년 전에 이미 땅이 창조되었다. 인간이 상상할 없는 태초에.. 우리는 그 시각을 모른다.

<1장 1절>은 창조 역사의 단순한 제목이나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초적 행동에 대한 선언이다(Keil과 Delitsch의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1은 창조에 대한 사실적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세대가 흘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

<‘6 일(날, 하루)’>은 지질학자가 원하는 만큼의 긴 세월을 가리키는 상징적 하루로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실제로 ‘날’을 24 시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말하는 수가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을 문자적으로 24 시간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15-79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의 가르침과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고대성에 대하여 진짜 그리고 필연적 충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5-84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주제들(창조, 지구의 나이, 인간의 고대성, 노아 홍수)에 대하여 과학적 결론들과 조화를 시도하였다.

(we have attempted to harmonize these subjects with the scientific conclusions advanced against them). /15-89